

## <주요기사>

### 02 본부동창회

- 송설총동창회 전국회장단회의 개최
- 김세영 명예이사장 흉상 제막식
- 제29회 송설총동창회장기 쟁탈 기별축구대회성료

### 06 지구별동창회 소식

- 김천지구
- 대구지구
- 구미지구

### 07 동문모교방문·특강

### 09 동문동정

- 각종 인사이동
- 축하합니다.

### 12 모교동정

- 졸업식
- 퇴임식
- 제13회 송설동창회장기배 전국동문골프대회 안내

### 15 동문단신

### 16 제14회 대구송설동창회 가족체육대회

## | 券 頭 言 |

### 송설역사관 건립의 저력! 이제 모교 사랑으로!



김병찬 총동창회장

전국에 계신 송설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창회장 김병찬입니다.

2007년도 송설총동창회 정기 총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올리는 것이 도리인데 이렇게 지면으로 대신하게 되어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동문님들께 안부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올해는 췌 지난 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해를 당하는 동문들이 없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송설 동문 여러분!

그동안 우리 송설 동문의 숙원이었던 송설역사관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송설의 역사를 보전하고, 더욱 발전시켜, 길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초석을 우리 동문들의 힘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실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송설의 저력이 드러난 쾌거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교문을 나설 후배들도 자랑스러운 송설의 역사를 확인하면서 더욱 정진하여 송설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송설 동문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교인 송설학원은 정해창 재단이사장님과 강흥구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재단과 교직원 전체가 하나가 되어 명문고 재건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영남의 오아시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동문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겠습니다. 역사관 건립에서 보여주었던 힘을 모교 사랑에 쏟아부시다. 송설의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동문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 송설총동창회 파크호텔 전국회장단회의 개최



4월 27일 오후 6시 30분 김천 파크호텔 2층 연회실에서 김병찬 총회장 주재하에 여만중 재단이사, 김천고, 김천중 교장과 각지구 회장, 본부 임원, 각 지구 임원 등 55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회장단회의가 개최되었다.

제일 먼저 김종철 송설역사관준비위원장은 동문의 성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송설역사관은 35%의 공정이 진척 되었으며, 학교의 도움으로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경과보고를 하였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 여만중 재단이사는 “과학고 입교를 막거나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라도 80년 전통의 명문을 살리기 위해 학교를 이전하자는 것이 재단의 중론입니다. 그이전에 이사장님 취임 후 목표를 전국 20위권 진입을 제 1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 현 학교에 대한 진단을 위해 전국의 중고등학교 중에서는 처음으로 재단이사 개인들의 출연금으로 1년에 걸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오늘 일부 자료가 배포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추론적인 단계이고 오늘 여기서 임원 분들의 논의를 통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재단에서는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학교 이전 문제를 신중하게 제의하고 서산 농장 매각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이며 서산 농장이 매각되어도 재단 재산으로 수익성 있는 다른 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이지 매각대금으로 학교 이전 자금 전환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하였다.

김병찬 총회장은 “오늘 주제는 어떤 결정을 하자는 입장보다 학교 교사 이전 문제에 임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맥을 잡아 보자”고 회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제68주기 교주 기제사 엄수



6월 16일에 모교 교주 최송설당 여사를 추모하는 68주기 기제 행사 가 거행되었다. 학교 정기대에서 거행된 이날 행사에는 강석호, 여만중 재단 이사와 김병찬 총동창회장, 안길룡 김천동창회장 외 동창회 임원, 유족 대표 최민호님을 비롯한 화순 최씨 문중, 관내 학교장 및 기관장과 많은 동창들이 재학생들과 함께 참석하여 최송설당 여사의 높은 뜻을 기렸다.

올 행사는 초현관 강석호, 아현관 강흥구, 종현관 최민호, 축관 박종근, 집례 안홍표, 집주 박재명, 장악 류경, 진설 손정훈으로 분정하고, 순서는 일동입정-초현 관분향-북녘-일동경례-초현관 헌작-독축-아현관 헌작-종현관 헌작-초현관 침주-유식-추모가 제창-고이성-일동경례-분축문급지위-철찬의 순으로 끝났다.

종현관 헌작 후, 동창회 대표(김병찬 총동창회장)와 학생대표(학생회장 문보겸)가 침잔을 하였다. 제사 후에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전교생이 차례로 교주 묘소 참배가 있었으며, 참제지는 식당에서 음복하고, 참배가 끝난 전교 학생들에게는 빵을 나누어 주었다.

## 세심 김세영 명예이사장 흉상 제막식 거행

4월 7일 11시 김천고 강당인 세심 관에서는 세심 김세영 명예이사장님의 장학금과 기숙 혜택을 받은 동문들과 정해창 송설당교육재단이사장, 김병찬 송설총동창회장과 동문, 교직원 등 9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세영 명예이사장님의 흉상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세심 김세영 명예이사장님은 우리나라가 한창 어려웠던 1957년부터 1994년까지 장장 37년간에 걸쳐서 우리들 165명의 세심장학생을 선발하여, 따뜻하게 재워 주시고, 먹여주시고, 4년간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해 주셨다 한다.

이사장님의 공덕과 은혜를 기리고자 세심장학동문들은 이사장님의 흉상을 제작하여 교내에 새로 건립된 '세심관(洗心館)' 내에 설치하고 그 제막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식전 행사로 준비된 세심동문 사진 영상물 상연과 재학생의 기악 연주가 끝난 뒤, 박인기(송설32회) 경인대 교수의 개회선언으로 시작이 되었다.

안청시 서울대 교수(세심장학회 이사장, 송설당교육재단 이사)가 '이사장님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자'는 인사말씀이 있고 경과보고는 강석호 흉상건립추진위원장(송설당교육재단 이사)가 하였으며 이외수 대구송설동창회장(송설당교육재단 이사)이 이번 흉상을 조각하신 김승국 영남대 교수 소개를 하였다.

그리고 김영우 세심동문장학회 회장이 이사장님 약력소개를 하고 정해창 송설당교육재단 이사장, 김병찬 송설총동창회장의 축사가 있고 김종철 송설역사관 준비위원장의 이사장님에 대한 회고사가 있었다.

그외 천한신 동문이 축시 낭독을 하고, 조 육 동문과 재학생의 축가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세심장학재단의 장학금 수여식도 겸했는데 장학금은 서울대 재학생인 김동현군과 1학년 8반 강태수, 2학년 1반 현준근, 2학년 6반 배병수, 3학년 3반이재곤, 3학년 6반 박관철 군에게 수여되었다.

강당 행사를 마치고 제막식이 세심관 입구에서 거행되고 세심 김세영 명예이사장님의 흉상이 모습을 보이게 되자 참석자는 교가 제창을 하였다.

## 송설총동창회 장학금 수여식



2월 9일 오전 11시 중학교 교장실과 고등학교 교장실에서는 송설총동창회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김종철, 강홍운 자문위원, 김선태 사무처장, 박재명 재무국장, 백승환 정보기획팀장이 모교를 방문하여 중학교 2명(1인당 20만원) 고등학교 4명(1인당 30만원)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고3 학생 2명(1인당 50만원)과 중3 학생 1명(30만원)에게는 2007년도 졸업식에서 수여가 될 것이라고 한다.

## 제29회 송설총동창회장기 쟁탈 기별축구대회 성료



5월 13일 김천중·고 운동장에는 김병찬 총동창회장, 이종성 서울회장, 이외수 대

구회장, 안길룡 김천회장, 박영록 대회장을 비롯한 동창들과 박보생 김천시장, 임경규 시의회의장, 임인배 국회의원, 이철우 경상북도 정부부지사를 비롯한 내빈들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회 송설총동창회장기 쟁탈 기별축구대회가 열렸다.

박영록 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은 4만여 동문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선후배간 우의를 다지는 날”이라며 “정겨운 교정에서 마음껏 뛰어보고 추억을 되새기는 즐겁고, 흥겨운 날이 되시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송

각종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사생대회

시상은 대상1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4명, 장려상 6명, 특선 20명

총 33명을 현장에서 대회장이 시상

- 대 상 - 중앙초등학교 : 3년 임지현
- 최우수상 - 마리아 유치원 문민영, 부곡초등학교 4년 김지우
- 우수상과 장려상, 행운상 시상자는 생략

### 어린이 바둑대회

저학년부 1,2위, 중학년부 1,2위, 고학년부 1,2위 총 6명을 현장에서 대회장이 시상

- 저학년부 1위 신일초등학교 박건휘, 중학년부 1위 부곡초등학교 박성호
  - 고학년부 1위 김천중학교 이명수
- 나머지 시상자는 생략  
바둑 대회에서 부상 및 참가자 전원에게 50만원 상당의 상품을 시상

설 50기는 “송설인이여 역동하라”는 슬로건 아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대회를 준비하였으며 송설가족도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이 행사에 참여하여 하나 되는 진정한 송설의 저력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격려사에서 김병찬 총동창회장은 “송설동문 여러분! 76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 3만 5천여 동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해왔다. 이는 일제강점기하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길은 교육뿐이라는 교주 최송설당 여사의 높은 뜻을 가슴에 새기고 매진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송설의 미래가 밝음을 확신했다.

12일 역동의 날에는 사은의 밤, 전야제가 개최되었으며 13일 화합의 날에는 축구, 족구, 테니스, 400m 계주, 윗놀이 등 다채로운 동문간의 우정의 경기를 개최되고, 오후 1시부터는 송학회 특별 연주회가 있고, 김천시민과 동문가족을 위해 어린이 그리기대회와 바둑대회가 열렸다.

### 제29회 송설총동창회장기 쟁탈 기별축구대회 성적

- 입장상 송설 고 42회
- 족구대회  
우승 송설 고 40회, 준우승 송설 고 35회
- OB족구, 축구 대회  
OB우승 송설 고 30회, OB준우승 송설 고 29회  
축구 우승 송설 고 38회, 축구 준우승 송설 고 39회
- 지구대항 테니스대회  
우승 김천지구 김태섭, 장병현,  
준우승 대전지구 김정식, 박준훈  
3위 대구지구 신득주, 배용주  
3위 김천지구 김선재, 최창현
- 400m 계주  
참가기수 1위 송설 고 37회, 2위 송설 고 36회  
3위, 송설 고 41회  
OB 기수 1위 송설 고 33회, 2위 송설 고 29회  
3위, 송설 고 30회  
지구별부문 1위 대구지구
- 최우수선수상 송설 54 - 고 38회 서창호 선수

## 총동창회 모교에 도서 기증

지난 4월 7일에 총동창회에서는 모교도서관에 소장할 200만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하였습니다.

‘세심 김세영 명예이사장 흉상 제막식’ 전 교장실에서 김병찬 총회장은 강흥구 고 교장에게 도서목록과 기증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송설동문 여러분도 도서 기증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총동창회 김천중 · 고 운동부 격려

8월 10일 오후 송설총동창회 사무국에서 여름휴가 중에도 연습에 여념이 없는 김태섭 중체육부장, 송성기 고체육 부장과 김천중 · 고 배드민턴, 태권도, 육상부원들을 방문하여 폭염의 더위를 잊은 채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리며 음료수 20박스를 전달했다.

## 제 3회 송설32회 장학금 수여식



3월 20일 오후 2시 김천고등학교 교장실에서는 강흥구 고 교장, 박종근 고 교감, 황성일 중 교감, 이종식 장학계 선생님이 함께한 자리에서 송설32회 장학회(회장 : 김판석) 박용배, 이응희 총무님이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2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하고 학업에 열중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하셨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김천중 3년 황재상군과, 김천고 3년 문병호, 류호승군으로 각 5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받았다.

## 송설38회 이철우 정무부지사 대구대 명예 박사학위

송설 38회 이철우(52세) 경상북도 정무부지사는 17일 대구대 분관 국제회의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구대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부지사는 그동안 경북도 정무부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지역산업구조의 다변화 및 고도화, 교육 · 문화 · 과학 기술 혁신 등 지역 성장동력 확충과 기반 조성에 크게 기

여했으며 투자유치, 벤처기업 · 특화산업 육성, 국제시장 개척 등 지역 경제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1955년 김천 출신인 이 부지사는 김천고와 경북대 사범대(수학교육), 연세대 행정대학원(정치학)을 졸업하고 의성 신평 · 단밀중 교사를 거친 뒤 1985년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에 들어가 국정원 국회 정보위원회 파견근무, 국장 등을 거쳤다.

## 경상북도 교육청 9월 1일자 발령

<초등> 송설32회 김용환 영양교육청학무과장에서 상주교육청 학무과장으로 발령, 송설32회 강영구 금릉초등학교 교장에서 부곡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

<중등> 송설32회 문영오 점촌고 교사에서 구미교육청 교감으로 발령, 송설33회 임원기 봉곡중학교 교장에서 선산고등학교 교장으로 발령, 송설34회 임준식 어모중학교 교장에서 김천여고 교장으로 발령

## ■ 김천지구동창회 ■



### 김천지구 제 1차 회장단 회의

3월 8일 오후 6:40분 김천시 남산동 자유예식장에서 2007년 제 1회 김천지구 회장단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날 안건은 김천송설동창회 1년 행사 예정과 예산에 대한 최종 심의가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동창명부, 총동창회보, 김천동창회보 배부가 있었다.

## ■ 대구지구동창회 ■

### - 제14회 대구송설동창회 가족체육대회 안내 -

- 일시 : 2007년 10월 14일(일요일)
- 장소 : 반야월 안심환경관리공단
- 주관 : 대구송설42회(중39회 고26회)

송설42회 동문들께서 주2회 이상 모임을 통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 구미지구동창회 ■

### 송설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4월 22일 한국폴리텍VI 구미대학(구 기능대학)에서 구미지구송설동창회(회장 최순응)에서 주관하는 '송설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되어 동문간의 우의를 다지는 좋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 구미 송설 동창회 이사회 개최

4월 9일 구미지구에서는 구미송설 단체들을 대표하거나 각 기별 이사 60여명이 고향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고향 순두부(동문 경영)"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다른 때보다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였는데 여기에는 최순응 회장의 아이디어로 각 이익 단체나 관공서별 이사를 선임한 것이 주효하였다고 한다.



### 구미지구 송설교육가족 동문회 성황

6월 19일 오후 5시부터 각 학교에서 퇴근한 구미 근교의 송설교육가족이 한 분, 한 분 봉곡중학교 체육관에 모였다.

지난 3월 23일 발족한 구미 송설교육가족 모임(회장 송설33회 임원기 봉곡중 교장)이 있기 때문이다.

봉곡중학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으로 우의를 다진 송설교육가족들은 인근의 솔빛가든에서 회포를 풀었다.

이 자리에는 구미 송설교육가족 30명과 구미교육청 교육장과 구미동창회 최순응 회장과 김한섭 고문 등 동창회

측 임원들이 참석하였고, 모교에서는 박종근 교감선생님과 이경근 교무부장, 본부동창회 백승환 정보기획팀장이 참석하였다. 전체 회원 68명 중 야간 자습 등으로 근무 중인 분을 제외하고 모인 오붓한 자리였다.

구미 송설교육가족 동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 송설 교육 가족 및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을 할 예정이며, 정기회로 4월과 11월에 모임을 가지며 회원 5인 이상의요구 시 임시회가 개최된다고 한다.

이날 최순응 구미동창회장과 김한섭 고문이 각 100만원의 찬조금을 주어 송설 교육가족동문회의의 모임에 힘을 더하였다.

## 익명의 동문 김천중·고에 1억원 기부

3월 13일, 익명의 동문이 모교인 김천중학교와 김천고교에 1억원을 기부하였다.

“어려운 학창 시절,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어느 정도 성공했으니 이제 학교에 돌려주고 싶다.”는 서울 영등포에 사는 60대의 독지가(전 섬유회사 경영, 현재 종업원에 회사를 물려주고 은퇴)는 본지의 ‘스쿨 업그레이드, 학교를 풍요롭게’ 캠페인 이틀째인 13일, 자신의 모교인 김천중학교와 김천고교에 1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알려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독지가는 “모교가 있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줘 오늘의 내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천중학교는 이 돈으로 방송시설을 교체 하고 싶다고 했으며, 김천고등학교는 도서관내에 컴퓨터를 들여놓아 멀티미디어 교실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 송설25회 이정협동문

- 학교발전기금으로 오천만 원 기탁 -

5월 23일 송설25회(고 9회) 이정협동문이 학교발전기금으로 오천만 원을 기탁하였다.

이정엽 동문은 상주 청리출신으로 “모교 발전에 조그만 보탬이 되었으면 하여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한다고 하였다. 이정엽 동문은 현재 이화팍텍(주) 대표이사로 계신다.

## 손상기동문 모교에 천만 원 장학금 기탁



지난 3월 6일 본교 중학교 27회 졸업생인 손상기 동문이 장학금으로 일천만 원을 기탁하였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시게 된 동문께서는 재학시절 받은 장학금이 너무도 감사하여 모교의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시게 되었다고 한다. 선배님의 훌륭한 신

뜻을 높이 받들어 후배들이 학업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익명의 졸업생이 준 푸른 장학금 수여식

6월 28일(목) 5교시 교장실에서 푸른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익명의 독지가(졸업생)가 240만 원의 장학금을 기증하여 2학년에 하형민, 하승엽, 3학년의 문은택군에게 장학금이 수여되게 된 것이다.

장학금 수여 사실을 밝히지 않기를 동문은 원하였다. 독지가의 약력을 소개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긴다.

## 이외수 재단이사 모교 특강



5월 19일 세심관에서는 재학생을 위한 이외수 재단 이사님(경원대학교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했던 청년 시절이 있었기에 현재의 영광이 있을 수 있었다는 교훈담과 국정원 요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국제 사회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덧붙여 고교 시절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와서 평행봉으로 체력을 다지곤 했다는 말씀과 함께 꾸준하게 운동을 하여 강한 체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그 외에도 학생들이 새겨야 할 인생 경험담을 많이 들려 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김한섭 삼일장학문화재단이사장 모교에서 특강

7월 7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간 여 분, 세심관에서는 김한섭 삼일장학문화재단 이사장(송설24회, 구미송설동창회 고문)의 '만남과 변화'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김한섭 이사장은 사업을 통해 모은 돈으로 지난 1990년 삼일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재단의 명칭인 삼일(三一)은 삼일 독립운동을 의미하는 동시에 먼 훗날 통일이 되더라도 영원히 후학을 돕는 장학재단으로서 남기를 기대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됐다.

김 이사장은 “삼일은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산과 소비, 유통 등 3개 요소가 하나처럼 원활히 움직여야지 기업이 살고 나라가 산다는 의미”이라며 “기업은 사회 환원

을 통해 사회와 공생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삼일장학문화재단에서는 김 이사장이 매년 1억 원씩을

기탁,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 80여 명씩을 매년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있다. 또 문화사업으로는 총·효·예를 잘 지키고 따르는 학생들을 선발해 각종 상을 수여하고 있다.



## 김천고 출신 현직 판·검사 모교 방문 특강



7월 7일 김천고를 졸업하고 현직에 재직 중인 판사와 검사 동문 16명 중 9명이 모교를 방문하여 특강을 하였다.

11시 세심관에 고1, 2년생이 모인 가운데 시작된 특강은 검찰과 법원의 소개 영상으로 시작하여 박윤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의 사회로 참석 동문 판·검사가 소개되고, 후배들에게 대한 조언이 있었다. 또 박윤해 검사의 '검사가 되기 위하여', 최영현 판사의 '판사가 되기 위하여'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특강의 관심은 지난 7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로스쿨 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이었다. “2009년 3월 국내 첫 로스쿨 개교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기존의 판·검사가 되기 위한 길이 법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유리하나 다양해 졌다.

로스쿨은 4년 학부성적과 법학적성시험(LEET), 외국어능력을 필수 전형자료로 활용한다. 비법학과 출신의 법조계 진출도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타고 출신자 의무배정과 마찬가지로 비법학과 출신도 3분의 1 이상 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문사회계열을 비롯해 공대 의대 등 자연계열도 로스쿨 진학이 붓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다”는 사실에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는 재학생들은 더욱 외국어 공부에 노력을 해야겠다는 지적도 아끼지 않았다.

후배들과의 질문과 답변에는 김홍창 검사가 해 주었는데 2년 기간의 “로스쿨이 1년에 2,000만 원 정도의 학비가 든다면 점은 저소득층의 신분상승 기회가 지금보다 더 제한되는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아마 “과격적인 장학금 제도와 정부지원책 등이 다각적으로 강구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해주었다.

오늘의 특강은 선배 판·검사들의 체험담을 직접 듣게 되어 후배들에게 목표를 크게 잡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자심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강에 앞서 교장실에 들린 현직 판·검사 동문은 교장선생님께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오늘 참석한 검·판사는 다음과 같다.

박윤해(송설47회-고 31회)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최영현(송설48회-고 32회)대구지법 부장판사, 이재덕(송설50회-고 34회) 대구지법 판사, 김홍창(송설50회-고 34회)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윤대해(송설52회-고 36회) 수원지검 검사, 이준영(송설58회-고 42회) 울산지법 판사, 조용래(송설58회-고 42회) 창원지법 판사, 안희준(송설58회-고 42회) 창원지검 검사, 이재욱(송설61회-고 45회) 서울동부지법 판사



### 송설46회 송갑수 영동경찰서장 모교 방문

지난 3월 27일 고30회 송갑수 동문(경찰대 2기 졸업)이 모교인 김천고를 찾았다.

2007년 1월 22일충북 영동 경찰서장으로 부임한 동문은 학창 시절에 받았던 선생님들의 크신 사랑을 잊을 수 없던 중, 인근 영동 경찰서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인사차 방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동문은 교무실에 계신 은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부임지로 향했다.

### 배드민턴 선수 출신 동문 후배 격려차 모교 방문



4월 19일 김천고 배드민턴 선수로 활약했던 동문들(회장 : 박수근 송설48회-고32회, 전회장 : 편동현 송설36회-고30회)이 교장실을 방문하고, 훈련에 매진하는 후배 선수들을 위해 격려금 1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매년 후배들을 위해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동문동정

< 순서 없이 실습니다. >

- 임용석(송설34회)동문-영덕세무서장 부임
- 송갑수(송설46회, 고 30회, 경찰대 졸업, 총경)동문-충북 영동경찰서장 부임
- 최영현(송설48회, 고 32회) 대법원 재판연구원(판사)-대구지법 부장판사 승진
- 김홍창(송설50회, 고 34회)동문-성남지청 부부장검사
- 여환섭(송설51회, 고 35회)동문-대구지검 부부장검사(현재 미국 연수중) 승진

현재 송설 출신 검사는 위 2명 외에 박윤해(송설47회, 고 31회, 대검 연구관, 부장검사), 박석재(송설50회, 고 34회, 창원지검 검사), 윤대해(송설52회, 고 36회, 수원지검 검사), 차순길(송설53회, 고 37회, 서울중앙지검 검사), 안희준(송설58회, 고42회, 창원지검 검사) 등7명이 있습니다.

- 박윤해(송설47회, 고31회,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부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국가정보원 파견, 법률지도관, 2년) 부임

- 최원길(송설43회, 고27회, 변호사)동문- [법무법인TLBS] 오픈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705 정곡빌딩 서관 505호  
전 화 : (02)535-9660~2  
팩 스 : (02)535-9868  
핸드폰 : 017-244-1965  
E-Mail : 5359660@hanmail.net  
법무법인주사무소 : 서울 광진구 군자동 464-1 TLBS빌딩  
전 화 : (02)498-1177
- 박경철(송설40회)동문-성주교육청 장학사 취임
- 고병헌(송설31회, (주)캐프 회장)동문-고향 상주에 20,000평 규모의 캐프그룹 상주공장 기공식을 2007년 3월 1일 10시에 현지에서 거행
- 조영호(송설34회)동문-대구지방교정청장 부임
- 이철우(송설38회)동문 재대구 김천향우회장취임-일시 : 2007.5.28 19시-장소 :대구 그랜드호텔

## 장정문 시인 두번째 시조집 ‘思鄉春(사향춘)’ 발간 - ‘내 고향 김천’ 등 61편 수록 -

장정문 시조집 ‘思鄉春(사향춘)’이 발간됐다. 1936년 교동에서 출생해 1968년 신아일보와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에 시조 ‘석굴암대불’과 ‘두메꽃’이 각각 당선, 화려한 문단 데뷔를 한 장정문 시인(송설21회)이 첫 시조집 ‘두메꽃’을 발간한지 31년 만에 두 번째 시조집 ‘사향춘’을 발간한 것.

장정문 시인(송설21회)은 김천고 국어과 교사로 재직하던 1978년 이경안, 정순량, 황명륜, 권숙월, 신현필 등 시인과 김천시문학회를 창립, 초대 회장을 맡아 ‘김천문학’의 전신인 ‘김천시문학’을 창간하는 등 향토문학 발전을 위해서도 왕성한 활동을 한 시인이다.

장 시인은 이번 시조집을 통해 고향이 얼마나 소중한 사무치게 그리운 재산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준기 동문(65세, 본부동창회감사)**

- 제 14회 맥그리그배 실라리안 골프대회 우승! -

**성문규 동문(52세, 송설38회)**

- 2007 대구시장배 골프대회 3위! -

## 김천시청 7월과 8월 동문 인사이동

송설33회 이호일 보건소장 직무대리(전보), 송설32회 조명철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전보지정), 송설39회 서정하 평화동장 직무대리(승진의결), 송설35회 최국현 교통행정과장(전보 분청전입), 송설 39회 김성수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전보 분청전입), 송설47회 박재영 시립도서관, 송설39회 한덕원 환경관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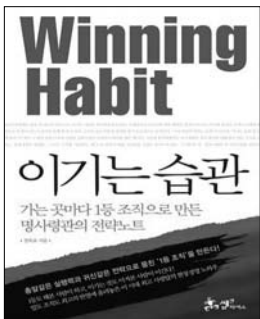
**서울 송설산악회** 창립 등반(07.3/31) 및 김성규(송설31회, 중28. 고15) 동문 회장 초대

**윤준승(송설63회, 고47회,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동문 - 임법고시 합격**

- 부친 윤병택 동문(고18회, 상주 낙동중학교 교장)

### 신간안내

### “이기는 습관”-송설39회 전옥표동문



경영학 박사(마케팅 전공), (주) 에스에이엠티유 대표이사 사장  
'애니콜, 파브, 지펠, 하우스젠, ...'

삼성전자의 마케팅 신화를 일궈낸 주역!

일 잘하는 삼성맨들이 꼽은 '가장 닳고 싶은 선배!'

최하위의 매출실적, CS 꼴찌 지점을 1등 지점으로 만든 조직경영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 송설39회 전옥표 동문이 “이기는 습관(가는 곳마다 1등 조직으로 만든 명 사령관의 전략노트)”이라는 신간을 발간하였다.

**이준기(송설25회)동문 - 세계아마추어골프 시니어대회에 한국대표**로 아마추어 골프고수 ‘살아있는 전설’ 이준기 동문(송설25회, 고9회, 본부동창회 감사)이 오는 8월 24일부터 6일 간 개최되는 세계아마추어골프 시니어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전세계 아마추어 정상 96명이 미국 시애틀에서 시합을 하게 되는 대회에서 좋은 결과 가지고 돌아오길 바란다.

**정해창 (송설당교육재단이사장)**

- “자랑스런 서울법대인” 선정

서울대 법대 동창회(회장 이재후·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제15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에 고(故) 김증한(金曾漢) 전 서울대 법대학장, 윤영철(尹永哲) 전 헌법재판소장, 정해창(丁海昌) 전 법무부 장관 등 3명을 선정했다. 이들에 대한 현창식(顯彰式)은 5월 3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프라자호텔 22층 덕수홀에서 열리는 2007년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있었다.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 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판사(송설51회, 고35회)에게 배당**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란 점을 감안해 ‘적시처리사건’으로 지정, 가급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판하도록 했다.

김 판사는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을 22기로 수료하고 특허법원 판사를 거쳐 올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을 맡았다.

사건을 맡은 김 판사는 지난3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이던 ‘석궁테러범’ 김명호 전 성균관대교수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시킨 바 있다.

**송설39회 서대운동문 차녀 결혼**

- 일시 : 2007년6월 24일(음5.10) 일요일 오후4시
- 장소 : 대구 인터볼고호텔 본관1층 “카펠리아 홀”

**유니버시아드대회 국가대표로 출전**

- 송설71회 오명택 동문

김천고를 졸업하고 대구대 1학년에 재학 중인 오명택 동문이 200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골프종목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오는 8월 14일에서 17일까지 태국 방콕 워터빌 G.C에서 개최되는 200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김천고 골프부가 창설된 후, 프로골퍼도 배출되고 전국 대회 상위 입상도 많이 하였지만 국가대표가 된 동문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명택동문은 지난 6월 4일에서 7일 제주 크라운CC에서 개최된 제24회 회장기 대학 대항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하여 이번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국가대표가 되었다.

**송설39회 서강봉 동문**

- 국민연금성동광진지사장 발령 -

**송설39회 전옥표 동문**

(주)에스에이엠티유 대표이사 전옥표 동기(재경고문) 창립1주년 기념행사

- 일 시 : 2007년 7월 10일 (화) 오후3시
- 행사장 :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53-5 청진빌딩 9층 (사무실 : 4층)

**배병길(송설39회) 동문**

2007년 대한민국건설기술상 건축디자인부문 대상 수상

**IOC위원들 감동시킨 안정현은 누구?**

평창이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러시아소치에게 개최권을 빼앗겨 아쉬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말솜씨로 IOC 위원들을 사로잡은 안정현(36)은 안청시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송설당교육재단 이사)와 손봉숙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2녀 중 맏딸로 태어나 코넬대 러시아학과를 졸업했다.

**박명수(송설43회, 고27회, 경찰대 졸업, 총경동문**

- 정선경찰서장 부임 -

송설동문 중 경찰서장은 송갑수(고 30회, 경찰대졸업, 총경) 영동경찰서장, 서범규(고 31회, 경찰대졸업, 총경) 영덕경찰서장이 있습니다.

**김상진(송설40회, 고24회) 동문**

- 삼척세무서장 부임 -

송설동문 중 세무서장은 안희승(고 18회) 부천세무서장이 있습니다.

**김재현(송설38회, 前 구미동창회 회장) 동문**

- 딸 경민양 결혼 -

- 시간 : 2007년 8월 18일 오후1시
- 장소 :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성태운(송설40회) 동문**

- 대구지방법원 민사합의과장 부임 -

### 유재훈(송설45회)지휘자 스승 이안삼선생 신작 “그날이여” 초연



지난 6월14일 육본정기 공연이 KBS홀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은 참모총장, 미8군사령관, 국방위원장, 외교사절을 비롯 많은 관객이 참여했으며 위성

방송으로 4회 방영되었다.

초연된 작품은 육본에서 위촉받은 신작은 “그날이여”(홍금자시, 이안삼곡)이며 스승과 제자가 함께한 무대여서 뜻 깊었다 유재훈육군본부군악대장(송설45회)은 학사장교로 입관 작곡가로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하다.

협연은 Sop김인혜(서울음대 교수)Ten김재우(Opera가수)의 2중창으로 불려져 큰 환호를 받았다.

### 강재구(송설40회) 동문 - 상주시 화령우체국 국장 부임 -

### 이규진(송설52회, 고36회, 중령) 동문 - 야간비행업무 중 순직 -

7월 20일 서해상에서 추락한 공군 KF-16D 전투기 조정 비행사 중 한 명이 본교 출신 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규진 중령은 평소 주변으로부터 신망이 높고 책임감이 강한 송설인으로 알려져 왔다.

고인의 영전에 명복을 빕니다.

### 윤진철(송설22회) 동문 - 차남 송설57회 기산군 결혼 -

- 시간 : 2007년 3월 18일(일) 오후 2시

- 장소 : 김천파크호텔 2층 에메랄드홀

## 모교동정

### 송설74회(김천중)와 송설71회(김천고) 졸업식



2007년 2월 14일 오전 11시 경북 김천중·고세심관에서 중71회/고55회 졸업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날 거행된 졸업식에는 3년 동안 애쓰신 학부모님 그

리고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신 선생님들과 정해창 재단 이사장, 강석호, 여만종, 송석환, 안청시, 이외수, 이종성 재단이사, 정경수 감사, 김병찬 총동창회장, 안길룡 김천동창회장, 최순응 구미동창회장 등 동창회 임원과 박보생 김천시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장님들이 참석하시어 졸업생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날의 영광을 축복해주셨다. 그리고 졸업생에게는 졸업장이 수여되고, 우수 학생에 대한 각종 표창과 동창회 입회식이 거행되었다.

### 개교 76주년 기념식과 제 2회 한마음축제



5월 9일 개교기념일을 하루 넘긴 10일 교정 정기대에서는 정해창이사장님과 강석호, 이외수 재단이사, 정경수감사와 동창회 임원 및 교직원,

학생이 모인 가운데 ‘개교 76주년 기념식’과 ‘한마음축제’의 일환으로 교내체육대회가 거행되었다.

이날 30년, 20년, 10년 근속선생님 43명에게 공로패와 30년 근속상은 금반지 3돈, 20년 근속상은 금반지 2.5돈, 10년 근속상은 금반지 2돈이 시상되었고 강흥구 교장선생님 인사와 정해창재단이사장님 기념사, 권태환 동창회 자문위원의 축사가 있었다.

그동안 분산 실시되던 행사를 축제로 마련한 ‘송설 한마음축제’는 오늘 교내체육대회, 11일 송설학술제와 송설가요제, 10일부터 13일까지 전시되는 시, 그림, 사진, 컴퓨터그래픽 전시회가 13일까지 교내에서 진행되었다.

### 김천고 교사들 민족사관고에서 토론연수



7월 25일부터 27일까지(2박 3일) 김천고 교감 박종근외 21명의 교사가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주최하는 토론캠프를 수료하고 돌아왔다.

김천고등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중 단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우수학교 벤처 마킹이 실시된 것이다.

김천고는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모델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상호 교류를 하고 기타 선진학교를 방문하여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습득하고 새로운 정보를 연찬회를 통하여 공유 협의한다는 목적하에 송설당교육재단의 일체 비용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수이다.

## 김천고 강흥구교장 대통령 표창 수상

강흥구 김천고 교장선생님이 스승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강흥구교장선생님은 2004년 12월 최신식 멀티미디어 시설을 완비한 세심관이 신축된 후 교내 행사는 물론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고 400석 규모의 최신식 도서관이 신축된 후 학생들의 체계적인 독서 교육과 학력 신장에 매진해 왔다.

특히 2006학년도에는 과학적이고 창의적 경영으로 경상북도 일반계 고등학교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금년에는 2008학년도 대입시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교내 통합 논·구술 대비 TF팀을 구성하여 논·구술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준별 보충학습을 도입하여 하위권에게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중상위권에게 자기주도적 선행 학습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전국 중등학교 단위에서는 최초로 학교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각종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성으로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송철인 육성과 학교 발전, 지역의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이번 스승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이다.

이외에도 여영국선생님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표창을 이무원선생님이 경북교원단체연합회장 표창을 받았다.

## 서예가 안홍표선생님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로 선정—

김천 서우회 회장을 맡고 있고 김천고에 재직중인 운과 안홍표선생님이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지난 14일 서울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열린 (사)한국서예협회 주최 제19회 대한민국서예대전 시상식에서 초대작가 증서를 받음으로 명실 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예작가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운과 안홍표선생님은 동창명부 제자와 송철총동창회, 김천송철동창회 현판, 송철역사관추진위원회 현판, 송철동창회보, 김천송철동창회보 제자, 송철39회의 졸업 30주년 기념 송림정현판 등을 해 주신 분이시다.

## 손정훈 김천고 행정실장

—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

(논문 '한국 공공조직의 효과적 팀제 도입 전략에 관한 연구')

손정훈 김천고 행정실장이 서남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행정조직을 전공하고, '한국 공공조직의 효과적 팀제 도입 전략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영남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영남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는 손실장은 공공조직의 효과적인 팀제 도입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팀제를 도입했다고 평가되고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을 대상으로 팀제 도입과정을 분석하고 팀제 도입의 성공요소 특히 도입 전략을 도출하고, 각 대상의 도입 목적과 필요성 및 참여 양상에 대한 분석과 성공요건에 대한 연구 등이 수록되었다.

학위 수여식은 8월 25일 서남대에서 있게 된다.

## 제 1회 중학생 영어·수학 경시대회 성황



제 1회 중학생 영어·수학 경시대회가 6월 23일 10시에서 12시 40분 김천고에서 영어 113명 수학 128명 총 241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번 영어·수학 경시대회는 김천시가 후원하고 김천고등학교가 주관하여 김천, 구미, 상주, 칠곡, 성주 지역의 중학생들의 영어·수학 능력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처음 실시한 것으로 근교 중학생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 김영환선생님의 퇴임식



2월 12일 16시 세심관에서 38년 가까운 세월동안 송철인을 키워오신 김영환선생님의 정년퇴임식이 강석호 재단이사, 백락광 학운위원장, 권태환 총동창회 지문위원, 김선

태 총동창회 사무처장과 1, 2년 재학생, 가족 친지와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거행 되었다.

## 김천중 이동식교장선생님 정년퇴임



2월 15일 11시 세심관에서 1964년 3월 교직을 시작하여 42년 넘는 세월동안 김천고 교사, 김천고 교감, 김천중 교장을 역임하신 이동식교장 선생님의 정년퇴임식이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강석호 재단이사, 정경수 감사, 강흥구 고교장, 정향택 학운위원장, 총동창회 정우고분, 최준동, 김종철, 권태환, 서남주 자문위원, 안길룡 김천동창회장, 박현식 김천동창회 고분, 김선태 본부사

부처장과 1, 2년 재학생, 가족 친지와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손용식교감의 식사와 강석호 재단이사의 축사, 이동식 교장선생님의 퇴임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동식 교장선생님은 “퇴임 후에도 항상 송설을 생각할 것이며, 학교 발전을 기대하고 칭찬하는 긍정적 사고로 생활할 것”이라고 퇴임사에 대하여였다.

이동식 교장선생님은 송설26회 동문으로 62년 2월 김천고를 졸업하고, 대구교육대학 졸업 후 초등에서 근무하시다 80년 3월 김천고에 오신 후 99년 9월에 김천중 교장에 취임하신 후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동안 문교부장관상을 비롯 경북교육감상, 김천교육장상을 여러번 받으시고 2005년에는 김천교육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오는 2월 28일에는 황조근정훈장을 받으시게 된다.

## 제13회 송설동창회장기(배)전국동문골프대회 개최 안내

♣----♡ 행사안내 ♡----♣

### ▣ 대회개요 ▣

- ♣ 일 시 : 2007년 10월 30일(화요일)10:00~
- ♣ 장 소 : 파미힐스 골프클럽 (경북왜관)  
 ☞ 동코스 : 18홀 ☞ 남코스 : 18홀 (36홀)  
 ☎ : 054-971-9900
- ♣ 참가대상 : 송설동문 골프동호인, 초청인사

### ▣ 대회요강 ▣

- ♣ 경기방식 : 18홀 스트로크플레이, 페리오
- ♣ 출발방식 : 11:00부터 동,남코스 in,out 4개팀씩 출발  
 티업시간 : 7분 타임
- ♣ 참가비 : 25,000원 (개인별납부), 캐디피, 그늘집비용 개인부담  
 비회원 : 140,000원 (그린피, 카트사용료)  
 회원 : 60,000원 (그린피, 카트사용료)  
 ※ 동코스 카트비 5,000원 추가  
 ※ 시상품,참가상,식대,기타 주최측 부담
- ♣ 참가신청 : 각지역 동창회, 지구별골프회,기수별,개인 접수
- ♣ 접수처 :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golf1931> 카페이름 : 송설골프클럽
- ♣ 참가비 접수구좌 : 신한은행 **110-212-651673** 예금주 : 대구송설회 (이정수)  
 ※기타 자세한 일정과 참가신청방법,조편성,진행방법등은 추후 송설골프클럽에 공지하겠습니다.

### ☎ 연락처 ☎

우편주소: 대구시 서구 비산7동 2028-53 [경동운수(주)]  
 M.P : 011-509-0161 ☎. 053-357-5295 FAX : 053-357-3226  
 mail : [kdt7755@hanmail.net](mailto:kdt7755@hanmail.net)  
 대회장: 고병현



잊힌 동문을 찾아서(총 2회 중 1회)

## 작곡가 나화랑 (羅花郎)의 생애와 가요 세계 알아보기



### 1 민경탁 (송설33회.시인)

가요 무너진 사랑탑(남인수 노래), 울리는 경부선(남인수 노래), 이정표(남일해 노래), 날너리 맘보(김정애 노래), 향기 품은 군사 우편(황금심 노래), 열아홉 순정(이미자 노래), 뽕 따러 가세(황금심 노래), 행복의 일요일(송민도 노래), 청포도 사랑(도미 노래) 등의 명곡을 남긴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 나화랑(羅花郎)은 송설 동문 이시다.

그런데 한국 대중가요계에서 동 시대에 활약하였던 작곡가 이재호·박시춘·손석우 등에 비하여 나랑, 그의 가요사적 업적이 지나치게 폄하되거나 오도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 보인다. 1950 ~ 1970년대 한국 가요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편곡, 연주, 가요 비평, 음반 제작회사도 경영하였던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우선 그의 성명 표기부터 학력, 작품 명의 등이 가요 관련 여러 문헌과 야후 백과사전 등에 잘못 소개 되고 있기에 이를 바로 잡아 알리려 한다. 그의 음악적 경륜을 중심으로 그의 생애와 가요사적 업적에 대하여 알아본다.

### 2

작곡가 나화랑(羅花郎)의 본명은 조광환(曹曠煥)<sup>1)</sup>으로 1921년 1월 25일 김천시 봉산면 인의동 722번지에서 출생하였다. 김천 봉계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35년 김고등보통학교(5년제)에 입학, 학교 부라스 밴드 악장으로 활약하였으며 1940년에 모교를 졸업(송설 제5회)하였다.<sup>2)</sup>

김천고보 졸업 후 그는 가정 형편상 잠시 가정에 머무르다가, 장차 음악계에의 큰 포부를 안고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東京)의 중앙음악원에서 기악(바이올린)을 익혔다. 유학 중에 그는 4:1의 경쟁을 뚫고 동경의 <동보(東寶) 성악대>의 합창단원으로 선발, 활동하면서 학비를 조달하기도 하였으나 당시의 시국 사정으로 인하여 1941년에 수료한 것으로 전한다.<sup>3)</sup>

조광환(曹曠煥)의 만형 조경환(曹景煥 ; 예명 고려성(高麗星))은 당대에 연예계에 발이 넓었던 극작가 겸 작사가였다. 고려성은 출중한 외모로써 연극 연기와 시나리오 창작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요 작사도 하는 등 그 당시 가요계에 인맥이 상당히 넓었다고 한다. 가요「나그네 설움」(백년설), 「마상일기」(진방남), 「삼각산 손님」(태성호), 「일자일루」(백년설) 등이 모두 그의 작사 작품

으로 전하고 있다.

조경환(曹景煥)은 1930년대 말부터 가요 작사 활동을 하였는데 그 대표곡이 당시의 인기 가수 백년설이 부른 「나그네 설움」(이재호 작곡, 태평레코드사, 1938)이다. 고려성의 이러한 활약(태평 레코드사 문예부장 역임)으로 흘러온 가요 음반 중에서 고려성 작사, 나화랑 작곡의 형제 합작 음반을 흔히 발견할 수도 있게 된다.

### 3

나화랑은 처음에 가수 생활을 시도하였었다. 1941년 태평 레코드사에서 주최한 제21회 레코드 예술상 전국 결선(당시 서울 종로 제일 극장에서 있었던 가수 선발대회)에서 3위로 입상, 동시에 입상한 남춘역, 백난야 등과 함께 「어머님 사진」(고려성 작사, 나화랑 작곡, 태평레코드사, 1942) 등의 가요를 취입하기도 하였다. 그 후 나화랑이 가수로서 취입한 가요가 몇 편 더 있다.

하지만, 그는 가수로서의 명성을 크게 얻지 못하자 이내 그 꿈을 접고 작곡에 전념하게 된다. 작곡가로서의 그의 첫 작품이 「삼각산 손님」(고려성 작사, 구성진 노래, 대동아레코드사, 1942)이었다. 이 작품부터 그는 작곡 쪽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게 된다. 그 후, 포리돌레코드사 및 지구레코드사 등에서 전속으로 있으면서 작곡은 물론 가수 발굴, 가요 비평 등에서 한국 가요 부흥에 힘을 썼다.

그 후 그는 1945 ~1948 동안 김천고등여학교(현재의 김천여자중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음악교사 생활을 그만 두고 다시 상경하여 당시 박경원, 원방현, 금사향, 박재홍 등의 전속 가수들이 소속돼 있었던 서울레코드사에서 작곡 활동을 하게 된 것으로 전한다. 6·25 때에는 육군 군예대에서 활약을 하였으며, 그 후 미8군 가요무대에서 활약을 하기도 하였고 한 때 KBS 경음악 단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이 무렵 그는 가요 작곡과 비평에 전념하면서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 가요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서 송민도, 남일해, 명국환, 도미, 박재란, 이미자 등의 가수들을 데뷔 및 배출하면서 그의 음악적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1)조광환(趙光煥), 조광환(曹光煥) 등으로 표기함은 잘못임. 이하 존칭은 생략함.

2)현재 야후 백과사전과 여타 문헌에 나화랑의 학력이 김천농업학교 또는 김천 고등농림학교로 잘못 알고 있음. 필자도 고교 2년 때까지 모교의 악대부 활동을 하였으니, 나화랑은 모교의 악대부 대선배이다. 1967-68년 무렵 고교에서는 김영구(악장, 트럼펫), 지휘 김동민, 김학규, 이치화(이상 트럼펫), 박인건, 송건수, 우재면, 임원식(이상 트럼본), 민경탁, 이호일, 최남섭(이상 바리톤), 최영수(수사폰) 등의 동문들이 김법 또는 이안삼 은사 지도 아래 악대부를 자율성 있게 이끌어 왔었다.

3)여러 문헌에 소개되고 있는 나화랑(조광환)의 학력 동경음악학교는 동경음악학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근구 동문(송설 제5회)은 밝히고 있다.

송설의 기상으로! 송설인의 열정으로!

# 제14회 대구송설동창회 가족체육대회

- ♣ 일 시 : 2007년 10월 14일 (일) 09 : 00 ~ 16 : 00
- ♣ 장 소 :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안심관리소(잔디구장)
- ♣ 행사내용 : 축구, 배구, 족구, 마님승부차기, 800m계주, 명랑경기, OB마당, 제기차기, 어린이마당, 장기자랑, 축하이벤트, 경품추첨 등
- ♣ 참석대상 : 송설동창 회원가족
- ♣ 주 최 : 대구 송설동창회
- ♣ 주 관 : 대구 송설42회(중 39회, 고 26회)동기회
- ☎ 연락처 : 대 회 장 강명규(011-532-7178) / 수석부대회장 김승일(011-514-3739)  
준비위원장 서석룡(011-511-7296) / 기획위원장 추관식(011-547-8543)
- ♣ 광고문안 제출처 : lovingu4109@yahoo.co.kr 백 준 011-525-4109(高 26회)  
FAX : 053-636-0083
- ♣ 광고비협찬 계좌 : 하나은행 522-910034-83205 예금주 : 김승일(高 26회)

## | 대 회 조 직 표 |

